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사업 선정

3년간 88억 지원 받아 특성화 분야 발전에 활용

지난 달 31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시행하는 2006년도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사업'에 우리학교가 선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3년간 87억 6천1백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게 됐으며 올해는 이중 59억 2백만 원을 받는다.

지난해 서울대, 연세대 등 30개 대학이 지원해 8개 대학이 선정된 데 이어 이번에는 7개 대학이 지원해 우리학교와 중앙대가 선정됐다. 교육부의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과해 구조개혁 선도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앞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치열한 대학 간 경쟁체제 하에서 우열이 확실하게 갈릴 공산이 크다.

우리학교는 이번 선정에 따라 향후 법학전문대학원 인가, 2단계 BK21사업 중간평가 및 재진입 등 교육부 추진사업과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등

각 부처의 대학 지원사업 선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대학구조개혁사업은 특성화를 통한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지역과 대학 내 강점분야에 대한 자원 재배분 과정을 지원해 교육여건 개선,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대학을 재구조화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7개 대학이 지원해 △대학구조개혁의 효과 △대학운영체제 및 학사구조개혁 △학과(부), 단과대학, 대학원 통·폐합 △교육여건 개선 △학사과정 입학정원 감축 △대학원 입학정원 감축 등에서 평가를 받았다.

지원받은 국고금은 각 특성화 분야에 △특성화 구조개혁지원비 △우수교원 전략적 초빙 △교육프로그램 혁신 △교수·학습방법 혁신 △연구·교육·정보

인프라 확충 등에 쓰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 대학은 '사회요구에 부합하는 국내 최고 전문인력 양성'과 '특성화분야 세계수준의 핵심연구인력 양성'이라는 비전 아래 사회수요에 적합한 인력양성구조로 학문편제를 조정하고, 우리 학교 대학 특성화 사업 노선인 'ABC+a'에 기반을 둔 서울·경주·일산캠퍼스의 특성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ABC+a를 기반으로 한 캠퍼스별 특성화 추진방향은 서울캠퍼스의 Asia분야(불교학, 지역학), Bio분야(생명과학), Culture분야(영상문화콘텐츠), IT·NT분야의 특성화와 전문대학원(MBA, Law School) 개원과 인가추진이다.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사업 참여조건에 따라 우리학교의 향후 추진과제는

2004년 대비 2008년 입학정원을 10% 감축하고, 대학의 특성과 전략에 따라 대학의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다. 2007년 신입생은 서울·경주 캠퍼스에서 255명이 감축된다. 각 학과(부) 통폐합은 경주캠퍼스 법정·복지대학 법학과가 서울캠퍼스 법과대학 법학과로 통합될 예정이고, 서울캠퍼스에 연극영상학부 내 연극전공이 공연예술학부로 신설되어 연극전공과 뮤지컬 전공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기획예산팀의 한 관계자는 "대학구조개혁 사업을 시행하면서 국제학과를 폐지하는 등 여러 아픔을 겪었지만 이번 선정으로 잠재된 분위기에서 벗어나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미혜 기자
lmisonaral@dongguk.edu

총추위 공식 출범

2달간 총장선출 위해 활동 예정

제16대 총장선출을 위한 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가 출범했다. 총추위는 내년 2월부터 임기가 끝나는 제15대 홍기삼(국여국문) 총장 후임선출에 관해 지난 2월부터 법인이사회에서 논의돼 오던 제도이다.

총추위는 교수, 직원 외에도 학생, 종단, 사회인사 등 여러 구성원들을 대표하는 이들로 구성되어서 총장 임명에 있어 학내·외에 구애받지 않고 적격자를 널리 구해 후보자를 법인에 추천한다.

규정에 따르면 총추위는 42인으로 구성되나 지난 9월 '총추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문과대학과 사회과학대학의 교원 대표위원 2인을 공식으로 하고 40명으로 출범, 지난달 20일 첫 회의를 가졌다. 이날 출범된 총추위는 2달간 총장선출을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이날 총추위 1차 회의는 이사장 영배스님이 소집, 주재했으며 총추위 위원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 소개와 주요 경과·총추위 주요내용 보고가 있었다. 영배스님은 총추위 위원장으로 지홍스님을 지명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총추위 '실무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이는 실무위원장이 지홍스님을 비롯해 서울·경주 교원, 직원, 종단, 사회인사, 동문, 학생대표 1인씩 총 8명으로 이뤄져 있다. 당초에는 총추위가 적은 수로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으나 이날 열린 회의에서 실무위원회의 역할 제한을 명확히 하고 명칭을 확정짓는다.

지금까지 실무위원회는 지난달 25일 1차 회의를 진행했고 오는 10일에 2차 회의를 예정하고 있다. 이후 총추위 2차 회의가 열릴 계획

이다.

한편 우리학교는 지난 1일부터 각 언론매체와 학교 홈페이지, 교내 게시판에 총장초빙공고를 내고 16일까지 지원을 받고 있다.

총추위 위원은 다음과 같다.

▲서울캠퍼스 △교원대표=박인성(불교학), 신동혁(물리학), 손성(법학), 이명면(경영학), 강호덕(산림자원학), 이명식(건축공학) 이종태(산업시스템공학), 정진환(교육학), 장영우(문예창작학) △직원대표=하정윤(출판부), 조원생(학사지원실), 박상관(교무기획팀), 고제선(경영전문대학원 개원준비위원회) 개원준비팀) △대학원학생대표=김동주(학생회장) △학부학생대표=정성진(총학생회장), 우영진(부총학생회장)

▲경주캠퍼스 △교원대표=황옥자(불교아동학), 최영조(미술학), 최상범(조경학), 이명복(법학), 설영기(국제통상학), 이형재(수학교육학), 이원철(한의학), 김수성(의학), 김은중(의학), 김도균(의학) △직원대표=이강석(학술정보관리팀), 김상윤(경영관광야간강좌 행정지원실), 노동영(재무회계팀) △학부학생대표=강정구(총학생회장)

▲종단대표=박상근(지홍), 이상덕, 노순관(조계종 총회의원), 허장수(낙산사 주지) ▲동창회대표=송석환(수석부회장), 서영준, 전영화(부회장) ▲사회인사대표=민병천(전 총장), 백창기(전 중앙신도회장), 김재형(KBS PD)

이주현 기자
nitake@dongguk.edu



"100년 뒤에" ... 타임캡슐 봉안식이 지난 24일 정각원 앞 백주년 기념공원에서 열렸다. 489개의 소장품을 품은 타임캡슐은 앞으로 100년간 보존되어 건학 200주년 기념일인 2106년 5월 8일에 개봉될 예정이다.

대학부 dgupress@dongguk.edu

조계종 1억 5천만원 기부 송래섭 등문 1천만원 기부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에서 지난 2일 발전기금 1억 5천만 원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지난 6월과 9월에 이어 세번째로, 조계종 교육원의 발전 기금 기부액은 올해 총 5억원에 이르게 되었다.

기금은 우리학교 중비장학생 수행관 건립기금으로 정립될 예정이다.

한편 송래섭(식품공73졸) 동문이 지난 3일 학교를 방문해 후배사랑장학금 1천만 원을 전달했다. 송 동문은 이 자리에서 지속적인 후원의 뜻을 밝혔다.

도서 특별전 18일 까지

생활협동조합(이사장=송일호·경제학, 이하 생협)은 오늘부터 오는 18일까지 도서특별전을 연다.

상록원 앞에서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신간도서는 10~20%를, 구도서는 30~50%를 할인 판매한다. 이 외에 천 원 도서, 이천 원 도서 판매도 함께 한다.

금주의 동국인

사랑을 인화하는 사진관 김정환 아저씨

사진 속 모델이 얼마나 빛을 발하는가는 모델에 대한 사진작가의 애정에 비례한다는 말이 있다. 학생들에 대한 애정만큼이나 자신이 더 빛나 보이는 이가 있다. 학생들 사이에서 '다향관 사진관 아저씨'로 불리는 김정환 대표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얼마전 그가 백혈병으로 숨진 한 졸업생의 영정사진을 무료로 만들어 준 일이 알려졌다. 이번 일에 대해 그는 "평소 자신을 형 혹은 형님이라고 부르며 식구 같이 지내온 학생들에게 자신이 해줄 수 있는 일을 해줬을 뿐"이라며 겸손해 한다. 이번뿐만 아니라 그는 그동안에도 계속 학생들의 영정사진을 무료로 만들어 주면서 사진을 통해 작은 사랑 나눔을 실천해왔다.

"제가 찍어준 증명사진으로 입학원서를 낸 후, 취업에 성공한 학생들이 직접 찾아와 고맙다며 술자리를 같이 했었던 일이 사진관을 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다"라고 말할 만큼 그는 학생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한다.

하지만 3년 전 우리학교에서 사진관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에는 자신의 사진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학생들 때문에 마음고생도 심했다고 한다. 3년이 지난 지금, 그런 학생들일수록 마음이 약한 법이라며 더 잘해주려고 한다.

학생들을 진심으로 애정을 가지고 대했기에 이전 제법 많은 단골들이 생겼다. 그동안 수많은 우리학교 학생들의 얼굴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는 "오즘 대학생답지 않게 차분하지만 동시에 거대한 스케일을 가진 사람들"이라며 학생들에 대한 사랑을 보여준다.

'사람냄새 나는' 그가 소중하게 포장해준 우리들의 기억들은 오랜 시간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사진이 학생들에게 현재를 좋은 기억으로 남게 해주고, 그 기억을 디딤돌로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한다.

전제나 학생들에게 열려있는 사진관을 만들고 싶다는 그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동국인의 기억 속에 '따뜻한 사진관 아저씨'로 남아주시기를 기대해본다.

ssundam@dongguk.edu

지역 동문회 발전기금 전달 수원·대전·충남지역 앞장

수원지역동문회(회장=김용구·농경74졸)가 지난 2일 모교 발전기금으로 1억 2백 88만 원을 약정, 이 중에서 3천만 원을 전달했다. 남은 금액은 올해 안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발전기금 조성은 1억 원을 목표로 김용구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이 모교에

서 보내온 홍보물을 직접 전달하고 "학교 발전은 우수한 후배들을 후원하는 데 있는 만큼 수원동문회가 앞장서서 후배사랑을 실천하자"는 뜻에서 모금운동에 전력한 것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한편 대전·충남지역동문회(회장=한상익·경행74졸)는 지난달 29일 열린 월례총회에서 모교 100주년기념 발전기금으로 1천만 원을 전달하기로 결의했다.

본사사령

- ◇ 임수습기자
 - ▲ 선담은(불교대1)
 - ▲ 신용우(문과대 철학1)
- ◇ 면기자
 - ▲ 류경화(사과대1)
 - ▲ 손주희(사과대1)

- 이상 11월 6일자

동대신문 기획광고

느껴보세요! 학문의 달콤함~

제44회 동대 학술상 작품 모집

1. 모집분야 : 인문과학상, 사회과학상, 자연과학상
2. 응모요령 : 3개 분야 모두 200자 원고지 60매 내외의 학술논문
3. 시 상 : 각 분야별 장원 1명 100만원, 가작 1명 50만원

제21회 동대 문학상 작품 모집

1. 모집분야 : 시부, 소설부, 희곡·시나리오부
2. 응모요령 : 시부문 3편 내외, 소설부문, 희곡·시나리오부문 200자 원고지 60매 내외
3. 시 상 : 시 장원 1명 50만원, 가작 1명 30만원, 소설부문, 희곡·시나리오부문 각 장원 1명 100만원, 가작 1명 50만원

☆ 응모자격 : 본교 재학생 (대학원생 제외)
 ☆ 제 출 : 10월 23일(월)~11월 10일(금)까지
 직접·우편 접수 (전자우편, 팩스 접수 불가)
 ☆ 입상발표 : 2006년 11월 27일자 동대신문(예정)
 ☆ 문 의 : 02) 2260-3491~2

발전기금 060-700-0119

동대신문사

동국 100주년 파워엘리트 장학 신청 시작

접수는 다음 달 11일부터 ... 내년 9월 입학대상자로 10명 선발

새로운 100년을 이끌어 갈 100명의 핵심 인재 양성. 동국 100주년 파워엘리트 장학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올 초부터 기획된 이 프로그램은 미국의 분야별 대학원 상위 5위 이내의 대학 석, 박사 과정에 입학해 학위를 취득하는 학생에게 5만 달러씩 최대 3년간 지원되는 장학금이다. 이 프로그램은 지원 대상 학교의 내년도 9월 입학 대상(예정)자부터 시행되며 우리학교 학부 졸업생 또는 졸업예정자는 모두 지원 가능하다.

다음달 11일부터 5일간 신청서 △지원대상학교의 입학허가서 △성적증명서 △CBT 성적표 △

GRE 성적표 △자기소개서 △학업 이수계획서 △주민등록등본 △2인 이상의 추천서를 갖춰 취업지원센터 진로교육상담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는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소정양식에 맞춰 제출해야 한다. 이후 다음달 22일 경 1차 합격자를 발표하고 12월 27일에 면접을 진행, 내년 1월에 최종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발인원은 매년 10명이다.

지난 5월 발표됐던 파워엘리트 세부사항에서는 지원 자격으로 졸업연도와, 학부 성적, CBT 및 GRE 성적 제출 등의 제한이 많았다. 지원 자격 대상자가 확대된 데에 대해 진로교육상담팀 임종민 직원은

“취지가 장학금을 주어 인재 양성을 위한 것이었던 만큼, 제한을 두기보다는 더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열어주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조건은 대폭 완화했다”고 말했다.

또한 지원대상학교의 선정에 미국 대학원 평가인 U.S. News & World Report에서 실시하는 대학원 평가만을 적용시켰던 것에서, 여기서 평가되지 않은 세부 전공의 경우 학교가 인정할 수 있는 공식 기관의 선정 순위를 참고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따라서 신문방송학 등 실제로 U.S News & World Report에서 순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전공의 학생

은 그 분야의 권위 있는 평가기관이 선정한 순위 등 학교가 인정할 수 있는 공식기관의 순위를 제출하면 지원 자격을 갖춘 수 있게 됐다. 즉, 학생이 이 프로그램과 학업에 갖는 관심과 노력여하에 따라 지원자격은 유동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동국 100주년 파워엘리트 장학 프로그램에 대해 이국민(중문4) 학생은 “우리학교 학생들 중에서 미국 일류대학 대학원 출신 박사들이 많이 나온다면, 학교 이미지 제고는 물론 학생들에게도 큰 힘이 될 듯하다”며 밝혔다.

문서영 기자 syoob@dongguk.edu

임젠과 줄기세포은행 설립추진 양해각서 체결

대학-기업-병원 네트워크 조성돼 시너지 효과 기대



주식회사 임젠과 우리학교가 줄기세포은행 설립추진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지난달 25일 체결했다. 이는 우리학교 측에서 줄기세포은행을 일산병원에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기본시설을 제공하고, 임젠은 줄기세포은행의 주요 시설과 장비를 투자해 동국대, 병원, 임젠이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이다.

임젠은 2002년에 설립돼, 난치병 세포치료 역분화 성체줄기세포 신약제품 개발, 항노화 세포치료 화장품 소재 생산 등의 사업을 수행해 왔으며, 역분화 줄기세포 기술에 있어서는 최고수준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역분화 기술이란 줄기세포가 체세포로 분화하는 자연과정을 거꾸로 돌리는 기술로서, 생명의 기계를 거꾸로 돌리는 기술로 비유되고 있다.

이번 MOU 체결로 우리대학은 일산에 메디클러스터를 조성해 동북아 생명공학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특성화 전략의 첫 단추를 낀 셈이다. 메디클러스터란 병원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병원

을 중심으로 기초연구에서 실용화까지 연계된 네트워크로서, 이를 통해 병원-기업-대학 간의 기초 및 실용화 연구, 임상시험, 기술이전, 창업 등이 긴밀하게 연결돼, 시너지 효과를 꾀할 수 있다.

일산지역은 우리대학 일산병원을 비롯해 5개의 대형병원이 위치해 있고, 국제공방에 인접한 지리적 이점으로 첨단산업클러스터 및 메디클러스터 구축이 용이해 동북아 의료허브로의 성장 가능성이 충분한 지역이다.

우리대학은 이를 위해 일산캠퍼스 부지에 의학과와 기숙사를 신축하고 2009학년도에 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해, 생명공학연구의 인프라로서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준비하는 자가 성공 ...

지난달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취임한 김희옥(법72졸)동문이 지난달 31일 문화회 예술극장에서 '우리사회의 트렌드와 대학생활'이란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같은날 오후 7시에는 타워호텔에서 '김희옥 동문 헌법 재판관 취임 축하 및 로스쿨 유치 기원의 밤' 행사가 열렸다.

이승이 기자 thispaper@dongguk.edu

유비쿼터스 구축 위한 ISP 수립

우리학교의 유비쿼터스 캠퍼스 구축을 위한 ISP(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정보전략계획 수립이 시작했다. ISP란 대학의 학문·사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효과적으로 정보 기술을 연계하고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과 해결방안을 찾고 실행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이다.

종합정보시스템 교체에 필요성에 대해 정보관리실의 한 관계자는 “우리학교는 지난 1996년 정보시스템 도입(DRIMS)의 구축으로 대학사회 정보시스템 분야에서 선두에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의 수명이 약 5년에 그치고, 우리학교는 이 시스템을 10년간 사용하면서 경쟁에서 뒤쳐졌다”며 “그때그때 발생하는 문제를 수정해 나가는 과

정에서 애초의 추구하던 방향이 틀어져 종합정보시스템의 전면 교체가 절실히 필요해졌다”고 밝혔다.

따라서 교·직원과 학생 등 사용자에게 효과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학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유비쿼터스 캠퍼스 구축을 계획하게 된 것이다.

유비쿼터스 캠퍼스 구축에 앞서 ISP를 수립하는 이유는 앞으로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될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수행의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관계자는 “ISP 수립이 완료되면 드림스, 핸드오피스, 수강신청프로그램 등 정보시스템의 교체와 유비쿼터스 학생증, 모바일 캠퍼스 서비스 등의 사업

을 진행할 것”이라며 “ISP의 수립 약 1년 후에는 학생들이 유비쿼터스 캠퍼스를 실제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ISP 수립을 맡게 된 기업은 SK C&C로 임철환 4개 기업 중 선정됐으며 8월부터 대략적인 업무를 시작해 지난 달 19일 착수보고회를 개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현재 5명의 SK C&C직원이 정보관리실에 상주해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ISP TFT(Task Force Team)가 구성됐다. 이는 외부인인 SK C&C직원들이 우리 학교의 상황을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학교에 대한 정보, 자료를 제공하며 안건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TFT는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처장, 경영대·정보산

공대 100주년 기념음악회

100주년 기념음악회가 공과대학 동문회(회장=홍성표·토목71졸) 주최로 오는 11일 오후 3시 중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음악회는 개그맨 전유성 씨가 연출을 맡았고, 정삼규 성악가 8명이 모여 다소 어렵게 여겨지는 클래식음악을 코믹하게 연출해 청중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예정이다. 행사는 각과 분담금 및 협찬금으로 치러지며 공연은 동문 및 가족이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행사 후 모인 기금은 장학금으로 쓰여질 예정이다.

공과대학 총동문회는 엄기환(전자공학) 교수가 일부 동문들과 ‘공우회’라는 친목단체를 운영해오다 이날 정식으로 창립총회를 갖는다.

운동부 국제대회 출전

야구부 김학용 감독과 이태원(제교1), 배영섭(제교2)선수가 오는 7일부터 20일까지 대만에서 열리는 제16회 대륙간배 세계 야구대회에 우리나라 국가대표 감독과 선수로 선발됐다. 국제 야구연맹대회에서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는 우리나라, 호주, 쿠바,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대만, 필리핀 등 총 8개국이 출전하여 우승팀을 가린다.

한편 축구부(감독=김용혜) 김진현(제교1)선수는 오는 14일까지 열리는 AFC 아시아 청소년대회와 21일 열리는 한·일 올림픽 축구 대표팀 친선경기에 대표로 선발돼 출전한다.

본교 보직·직원인사 단행

본교 보직·직원인사가 다음과 같이 단행됐다. △입학처장=이상일(사회환경시스템공학)교수(겸직) △국제교육원장 겸 외국교육센터 교육부장=김일중(국제통상)교수(이상 10월 24일자) △법과대학 행정지원실=김광희 △경영전문대학원 개원준비위원회 개원준비팀=고재선, 홍석화 이상 11월 1일자

문서영 기자 syoob@dongguk.edu

동약로 수박 겉 핥기식 보도

“KTX 열차 지연...이상한 동국대...역울한 불합격” 지난달 28일 열차 지연으로 발생한 지각생들의 대처방법을 놓고 다른 학교와 차이를 보인 우리학교에 대한 언론보도이다.

여론은 둘로 나뉘었다. “동국대 재시험 불가 방침은 당연하다”는 의견과 “수험생이 무슨 잘못이나”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전자는 하루정도 미리 준비해 출발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며 우리학교를 옹호했다. 반면에 후자는 같은 날 수시전형을 진행한 학교들은 나름대로 지각생들을 위한 대처방안을 강구해 대처했지만 동국대만 수험생들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했으며 우리학교의 대처가 부족했음을 지적했다.

열차 지연 운행으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학생들은 “원래 KTX 열차도착 예정시간이면 충분히 면접을 볼 수 있었지만 사외발생으로 인해 시험을 보지 못했다”며 학교에서 면접을 보지 못하게 한 처사에 불만을 터뜨렸다.

학내에서도 ‘100주년과 함께 10달 동안 쌓아온 이미지가 한꺼번에 무너져버렸다’며 우리학교가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학교 측은 30일 홈페이지에서 이상일 입학처장의 ‘KTX 지연운행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재시험합격의 입장을 밝혔다. 이면에 실시한 전형은 심층면접으로서 난이도와 채점의 일관성 등의 문제가 있고 재시험을 실시할 경우 이미 시험 본 학생들과 형평성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재시험은 없다”는 것이었다. 입학관리실에서는 환불을 원하는 수험생들에게 100% 환불해주는 것으로 이번 사건을 일단락 지었다.

이번 일에서 틀림없는 사실은 각 대학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서 최선의 방책을 세워 대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우리학교의 대처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입시’라는 철저한 제도 속에서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학교가 ‘재시험 불가’ 태도를 취한 것은 그 방법 밖에는 달리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를 논란 속으로 들어놓은 언론의 모습이 아쉬울 따름이다.

이윤재 기자 yiyoonjea@dongguk.edu

계절학기 수강신청

2006학년도 겨울 계절학기 수강신청이 내일(7일)부터 3일간 실시된다. 재학생은 6학점 이내, 휴학생은 3학점 이내로 신청 가능하다.

수강신청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이뤄지며 교내 컴퓨터 실습실 또는 개인PC로 가능하다. 단, 9학기 이상 재학생은 소속대학 행정지원실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수강료는 이론과목의 경우 1학점 당(P/F과목은 시간당) 7만 5천 원이며 실험실습과목은 1학점 당 9만원이다.

개설교과목은 2006학년도 1학기 및 2학기 교과목 중 계절학기 개설 기준인원(10명)을 충족한 과목이며, 사이버강좌 및 학교에서 개설을 원치 않는 전공·실험실습 강좌는 개설되지 않는다.

계절학기 개설예정 교과목은 13일 발표될 예정이며, 폐강여부를 확인한 후 14일부터 2일간 수강정정을 진행한 후 확정될 예정이다. 수강료 납부기간은 20일부터 31일이다.

한편 휴학생이 계절학기를 수강하여 졸업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에도 복학 후 등록해 3학점 이상을 취득해야만 졸업할 수 있다.

도서관 문학기행

도서관 문학기행 고창서 열려



제2회 도서관(관장=정진환·교육학)문학기행인 ‘국화꽃 향기와 함께 하는 시 여행’이 지난 3일부터 1박으로 진행됐다.

우리학교 학생 25명이 참여한 이번 기행은 미당 서정주 시인의 분가인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일대와 미당시 문학관 등을 관람하고 미당문화재 행사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기행은 학생들이 문학 작품 속의 배경지를 기행하면서 그곳의 문화 배경, 문화유산 등을 봄으로써 문화적 소양을 기르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임현식·황승훈 교수

세계 인명사전 등재

임현식 교수(반도체과학)와 황승훈 교수(전자공학)가 지난 9월 세계 3대 인명사전인 Marquis who's who에서 발간하는 Who's Who Science and Engineering 9th 와 Who's Who in the world, 2007 edition에 각각 실렸다.

또한 황 교수는 Who's in asia, the 1st edition에도 선정되었다. 이로써 임 교수는 WCDMA 시스템의 표준화에 대한 연구, 황 교수는 저차원 반도체의 전기과학적 특성 연구 성과를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농구부 결선 리그 진출

농구부(감독=이종희)가 안동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안동시장배 제43회 전국대학농구연맹전’ 결선에 진출했다. 결선리그에는 경희대, 연세대, 조선대, 중앙대, 한양대 등 총 6팀이 진출했다.

결선리그는 같은 조에 속한 팀을 제외한 4개 팀과 한 번씩 맞붙게 되는 라운드로빙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앙대, 한양대와의 경기는 어제까지 진행됐으며, 남은 일정은 △조선대=6일(오늘)1시 40분 △연세대=7일 12시 SBS스포츠TV에서 중계방송 될 예정이다.

한전부터

택댄스

○...중앙도서관에선 구두신은 여학생들만 등장하면 긴장한다는 데.

내용인 즉, 여학생들이 신은 구두의 굽소리가 도서관 내에서 심하게 울려 공부하는 학생들의 머리 속도 울리게 하고 있다고.

도서관 측은 만해관과 마찬가지로 카펫을 설치해 구두소리로 인한 소음을 줄여야 하지는 않을까.

새로운 도서관 출입카드는 부지 포로 만든 짝창(!?)

혈레벌떡

○...“왜 발표자가 질문에 동문 서답을 하는 거지? 도대체 언제 시작하는거야?”

지난 2일에 열린 국제학술대회가 사전의 공지 없이 발표가 지연되고, 두 학교 발표자의 토론 중 동역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 양측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등 대회진행에 문제가 있었다고.

국제적인 학술 대회인 만큼 사전에 동시통역이 주의를 기울여 의사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체계적인 준비를 바탕으로 학술제본 의미를 살려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견 무대자 윌, ‘학술대회도 버락치기로 (!?)’

음소거

○...“시끄러워서 도무지 집중할 수가 없어.”

지난달 21일 학법관에서 수시2학기 논술고사를 친 고등학생들은 불만이 가득했다는데.

이유인 즉, 논술고사를 치는 동안 만해관장에서 식품공학과 동문체육대회가 열려 방해가 되었다고.

논술고사를 치는 날 체육대회를 이유로 시설 대관을 해 준 학교 측의 잘못도 있지만, 체육대회를 하는 학생들도 소리를 지르는 등의 소음은 자제해야 하지 않았을까.

이에 한 예비동국인 윌, “후배들을 위한 배려는 소리 없는 아우성부터!”

예의 제로

○...홍길동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고, 시험 감독은 컨닝을 컨닝이라 부르지 못했다는 데.

시험기간 학생들이 답안 작성과 상관없이 교수 이름을 몰라 옆 사람의 시험지를 쳐다보거나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다.

학문을 탐구하는 대학생으로서 자신이 수강하는 과목의 교수명을 알아두는 것은 가르침을 전하는 스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런지.

이에 본 회견무대자 윌, “교수명도 공부야 필요해(!?)”

영상문화컨텐츠 특성화 장학금

총무로영상문화사업단(단장=이종대·영상대학원)은 지난달 25일 남은정(문예창작) 외 19명의 학부생에게 영상문화컨텐츠 특성화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이번 장학금은 ‘영상문화컨텐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 혁신사업’ 선정에 따라 국고지원금에서 지급된다. 장학생 선발은 영상문화컨텐츠 관련 분야 학과인 연극학과, 영화영상학과, 문예창작학과, 멀티미디어공학과 학과장 교수 추천으로 이뤄졌다. 장학금 수혜자들은 이번학기 등록금의 50%를 면제받는다.

이과대학 주최 취업특강 8일

제3회 이과대학 주최 취업대미특강이 열린다. 이는 이과대학 육성사업의 일환 중 하나로 기업 인사관리자 초청강연의 마지막 강의이다.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며 한국 취업전략 연구소의 유진봉 소장이 ‘성공적인 취업준비 전략’에 대해 강연한다. 문화관 덕암세미나실에서 열리며 6시부터 2시간동안 진행된다.

대학시간강사의 현 처우와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왜 대학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해야 하는가

현재 국회에 대학강사(비정규교수)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하지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대학에서 강사가 강의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지만 교원이 아니며 그렇다고 근로기준법에서 노동자도 아닌 제도상의 문제를 대학교육을 규정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고쳐보자는 것이다.

대학강사에 대한 현재 처우

대학강사의 현실은 어떤가? 우선 전체 강의의 절반 가까이 맡고 있다. 교육대같은 경우는 60% 정도를 맡는다. 강사료는 시간당 1만 7천 원~5만 원으로 월수입이 평균 100만 원 정도다. 전임교수의 5~10분의 1정도다. 방학 때는 아마져 없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아야 할 사회복지인 4대보험도 극소수의를 제외한 대부분 대학에서 대학강사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연구공간은 말할 것 없고 휴게실조차 없어 교정 안 어디선가 서서 아니면 앉아서 학생지도를 해야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렇듯 임금 격차 이외에도 학사 참정권, 총장 선출권, 교과목 개설권, 연구실 제공, 각종 복지혜택 등에서 배제되어 있다.

대학강사들은 교원도 노동자도 국민도 아닌 스스로를 현대판 대학의 노비라고 생각한다. 대학강사는 학문적 열정과 학생에 대한 열의로 강의를 하다가 차별대우와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전임교수가 되는 소수를 제외하고는 제풀에 지쳐 강의보따리를 던지고 만다. 이런 현실이 대학을 붕괴시키는 가장



논단
김 동 애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교원법권지위 쟁취 특별위원회 위원장

큰 원인이었는데도 아직도 교육부와 대학은 대학 통제권이다 구조조정 등에 정신이 없다. 또 한쪽에서는 야심찬 지방캠퍼스 건설 등 각자 청사진으로 꿈을 부풀린다. 그런데 요즘 조기유학과 어학연수는 당연한 것이고 해외박사는 필수가 되었다.

시간강사 처우에 대한 문제점

대학강사는 원래 교원의 범주에 들어 있었으나 1972년 박정희 군사독재가 교원의 범위에서 뺏다. 강사들이 노조를 만들어 조교는 교원이고 강사는 왜 교원이 아니냐고 하니 몇 년 전 답답한 조교도 교원에서 빼버렸다. 강사들은 1980년대 중반부터 강사노조 만들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20년 넘도록 싸우고 있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는 지난 9월부터 국회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 정책토론회,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본인도 한 대학을 상대로 1999년부터 직위해제 및 해고후호소송을 하면서 대학에서 강의 그만두고 노조와 함께 교육부 청

와대 국가인권위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대학강사가 근로기준법상 단시간노동자라 퇴직금을 줄 수 없다는 1심판결을, 고법에서 1주에 15시간 미만의 강의를 할지라도 강의 준비 학생지도 채점 등 3배의 시간이 들기 때문에 대학강사는 단시간노동자가 아니며 퇴직금을 주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2004년 6월 국가인권위에서 전임교수와 강사의 차별을 잘못이고 신분보장을 해주어야 한다는 제도개선 권고결정문을 받았다. 인권위는 교육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나 교육부는 2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

그러면 왜 이 문제가 안 풀렸나? 가장 큰 문제는 대학강사 자신의 인식과 개선 의지의 부족이다. 아니 그보다 지금처럼 지도교수 선배 지인 등의 추천으로 구두로 강의 요청을 주고 받는 실정에서 이런 현실을 문제로 인식하는 것 자체가 이미 대학사회에서 매장을 각오해야 한다. 더구나 나만은 전임교수가 바로 될 것이라는 환상에 끌려 다니다 보니 비정규교수노조가 있는 대학은 서울 2곳, 지방 4곳에 불과하다. 동국대에

도 없다. 학생들도 등록금 문제 정도만 제기하고 부모들은 뺄 빠지게 등록금을 대지만 교육서비스 상품(?)의 수요자로 대학강사의 실정이 대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본질 문제에는 관심이 거의 없다. 대학입시 때까지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이에 비해 반대세력은 거대하다. 과거에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 교육위원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들은 대개 대학재단의 이사장이거나 그 이익을 나누는 사람으로 구성돼 강사문제 해결을 거부했다.

처우개선 위한 해결책

교육부와 대학교육협의회는 이에 대해 재원이 없으니 강사는 수준이 떨어지니 하면서, 대학 강의 노동의 절반을 담당하는 대학강사에게 정당한 처우를 거부하고 있다. 강사를 34년동안 법으로부터 배제시켜 갖가지로 악용하던 잘못된 제도를 고치는 것은 법에서부터 회복을 시작하여 앞으로 문제를 차례차례 풀어가야 한다.

다행히 이번 국회 회기에 대학강사에게 교원지위를 주어 대학강사의 처우를 개선해 대학교육을 개혁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는 정부가 대책을 세우고 국회가 고등교육법 개정 의결 촉구를 위해 집회, 1인 시위, 정책토론회, 국회의장에게 보내는 서명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이런 활동에 대해 대학구성원들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사설

구조개혁 선도대학 선정 이후의 과제

‘대학 스스로 구조개혁을 단행하면 정부가 각종 지원을 해준다. 구조개혁이란 정원감축, 학과 통폐합, 교육여건 개선 등이다. 이를 통해 대학의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국가의 총체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 일조한다.’ 정부가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이유다. 대학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 국가의 장래가 어둡다는 절박한 판단이 여기 개재해 있다. 이대로 가면 대학의 도산 사태가 불을 보듯 뻔하다. 대학은 이제 누군가를 가르치는 교육의 주체가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교육의 객체가 되어버렸다.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 개혁을 유도할 수밖에 없다는 게 가르침의 결론이다.

우리대학교를 비롯한 총 10개 대학이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 정부로부터 과격적인 지원을 받기는 하지만 내부로 눈을 돌려보면 난제가 첩첩산중이다. 정원감축은 등록금 손실을 가져오며, 그 여파가 지속되기 때문에 한정 기간 동안의 정부 지원 금액의 규모를 고려해 복잡하고 치밀한 계산을 해야만 한다. 학과 통폐합 사안은 그야말로 폭탄이다. 해당주체가 선선히 받아들일 리 없다. 많은 대학들이 필사적인 저항에 직면해 두 갈래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학과라 하더라도 교수와 학생들의 요구에 의해 체제를 유지시키는 길이 그 하나다. 명분은 물론 많다. 학문의 존속 이유는 그 고유한 본질에 있는 것이지만 사회적 경쟁력에 있지 않다는 논리가 전면에 나선다.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모든 대학들이 이런 체제를 유지하면 그 결과는 공동포망이다. 또 다른 선택은 당장의 아픔을 감수하고 구조개혁을 단행, 대학의 학문 구조를 경쟁력 강화 체제로 재편하는 것이다. 이른바 특성과 전략이다. 이렇게 되면 대학간 학과간 선의의 경쟁이 생겨 자연스럽게 체질이 강화된다. 미래의 전망도 밝고 취업도 잘 되기 때문에 지원자가 몰리게 된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이걸 알면서도 실행이 어렵다는 점이다. 저항의 파도가 만만치 않기 때문일 터이다. 그러나 전체의 생존을 위한 길이 부분의 희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진단이 정확하다면 그 길을 가는 것이 진정한 용기이다. 이런 용기는 스스로의 삶을 버어내는 아픔에 비견할 만하다. 구조개혁 선도대학이라는 이름과 함께 온 거액의 지원금은 어쩌면 우리 손에 쥐어진 값진지도 모른다.

동국만평

이주현 niitake@dongguk.edu



학생회 감사 · 선거 둘러싼 갈등

총대의원회와 총운위 간 마찰, 선관위 구성 및 예결산 감사 진행 안돼

11월이다. 학생자치기구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가 시작됐어야 할 때이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 구성도 흐지부지한 상태이다. 또한 각 학생자치단체의 예산결산감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11일, 총대의원회 명창희(정보통신4) 의장은 각 단위 회장들에게 1학기 통상감사를 위해 22일까지 자료제출을 하라는 통보를 보냈다. 그러나 거의 모든 단위에서 중간고사와 대중행사의 시기성을 문제로 연기요청을 했다. 이에 대한 답변 없이 지난 10월 30일, 다시 “11월 3일

까지 감사자료를 제출할 것”이라는 통보가 총대의원회로부터 전해졌다. 사실 회칙에 따르면 1학기 통상감사는 당해 7월 중순에서 8월 초에 이뤄져야 한다.

지난달 31일 열린 비상총학생회운영위원회(이하 총운위)에서는 총대의원회장과 총운위간의 마찰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다. 감사 시기와 단위선거 실시를 안건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총대의원회장은 “총운위에서 총대의원회의 권한인 선거진행과 감사에 대한 안건이 나올 수 없으며, 명백한 월권행위”라며 회의석상을 떠났다. 다음날인 11일, 총운위는

“학생대표자를 기만한 총대의원장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총대의원회 정·부의장과 각 단위 대의원장으로부터 구성된 중앙위원회에서도 마찰이 빚어졌다. 2일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이과대, 공과대, 생자대 대의원장과 야간강좌선거 및 감사위원장은 “대의원장이 부재한 각 단과대의 선관위장에게 중선관위의 의결권은 없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회칙 규정상 중앙위원 10인이 안돼 중선관위 구성이 불가능하므로 선거일정을 정할 수 없으며, 모든 단과대가 소외되지 않고 선거일정을 진행해야 한다”는

나머지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회의가 지속된 것이다. 이후 더 이상 진척되지 않자 “나는 나갑테니 불찰한 것으로 해달라”는 총대의원회장의 말에 “회의의 주재자로서 여기를 나가면 모든 권한을 포기하는 것으로 알 것”이라는 발언이 있었지만 자리를 떴고, 이후 사과대 대의원장도 자리를 떠나 단위 대의원장 4명이 남은 상태에서 중선관위를 꾸리고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3일에는 사회과학대 대의원장, 예술대·사범대·경영대 선거관리위원장이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의사소통의 문제이다. 선거가 치러져야 하는 만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평가와 대립으로 일삼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사이에서 충분한 논의가 돼야 한다. 서로의 의견을 수렴해 절충된 결론을 맺을 수 있도록 ‘진짜’ 소통이 필요할 때다.

이주현 기자
niitake@dongguk.edu

새 백년, 새 역사, 새 총장님!

2007년 건학 101주년, 동국대학교를 세계 초일류 대학으로 이끌어주실 총장님을 모십니다

동국대학교 총장 초빙

- 응모자격
 - 동국대학교를 대표할 수 있는 인격과 능력을 갖춘 분
 - 사립학교 교원 인원에 걸림사항이 없는 분
 - 본교에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교수로서 교·직원 불교계(조계종) 재직승려, 동문을 포함한 20인 이상 30인 이하의 추천을 받은 분
 - 총장의 자격과 능력을 가진 교외 인사로 교·직원 불교계(조계종) 재직승려, 동문을 포함한 20인 이상 30인 이하의 추천을 받은 분

- 제출서류
 - 지원서 1부
 - 주요업적 및 경력서 1부 (A4 3매 이내)
 - 동국대학교 발전 및 경영에 대한 소견서 1부 (A4 5매 이내)
 - 추천서

- 제출마감 및 제출방법
 - 제출마감 : 2006. 11. 16(목) 17:00까지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접수 또는 e-mail (e-mail 제출시 사전 전화문의 요망)
- 접수처
 - (우) 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법인사무처

- 기타
 - 각종 양식 등 세부내용은 동국대학교 홈페이지 (http://www.dongguk.edu)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접수인 경우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선임추천을 취소할 수 있음
 - 문의 : TEL 02-2260-3005~7 FAX 02-2260-8973 E-mail dgul@dongguk.edu

학교식당에 관한 만족도 조사

학생 76.1% 학교식당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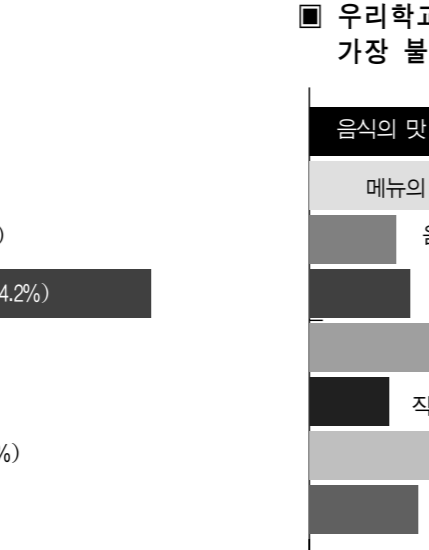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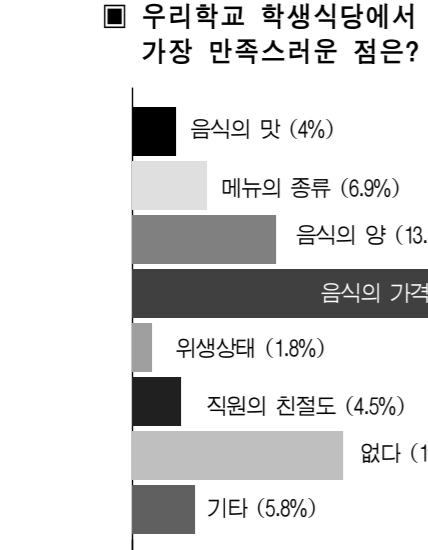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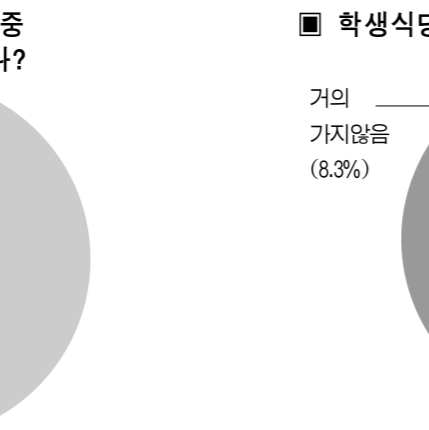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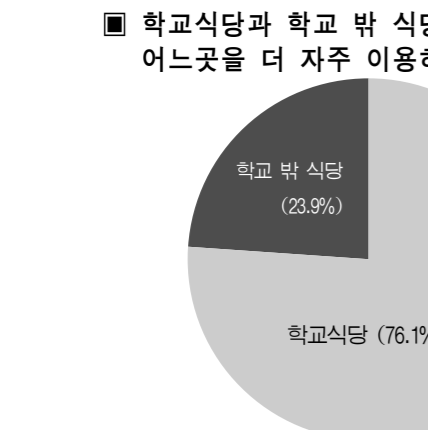
음식 가격에 만족 ... 고정된 메뉴에 불만 느껴

우리학교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우리학교 식당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했다. 이 조사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이루어졌다. 편집자

우리학교 학생들은 우리학교 학생식당을 얼마나 이용하고 만족하고 있을까. 200명의 학생을 설문조사 한 결과 응답자 가운데 총 76.1%의 학생이 우리학교 학생식당을 이용한다고 대답했다. 학생식당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그에 이어 '식당이 강의건물과 가깝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학생식당을 이용한다고 답했다.

'일주일 1~2번'이 21.2%, '거의 안감'이 8.3%로 순위를 이어갔다. 한편, 주거형태에 따른 식당이용은 △통학 36.9% △하숙 33.3% △자취 34.3%로 나타나 주거형태와 상관없이 학교에 오는 학생들은 대부분이 학교식당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식당에서 가장 만족하는 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는 '가격'이 44.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 뒤로 '없다'가 19.2%, '음식의 양'이 13.3% 등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만족한다는 의견을 보였으나, 음식의 종류와 맛, 위생상태, 직원친절도 등에 대해서는 절반정도의 학생들이 '보통'이라고 답해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학교 학생식당에 대한 건의사항으로는 많은 학생들이 '메뉴의 다양화'를 우선으로 꼽았다. 이와 비슷한 의견으로는 '영양가 있는 메뉴'도 있어 다양화를 위한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그 다음으로 '배식시간의 연장 및 식당별 시간과차배식'이라고 대답한 학생들이 많아 학생식당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자율배식', '리필' 등 양에 관한 의견과 '나눠된 시설교체', '공간 확장' 등 식당 내부 공간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생협 모니터 요원 제도의 허와 실

형식적 평가 문제 ... 학내 구성원 참여 필요

우리학교는 학생식당의 평가를 위해 자체평가제를 시행한다. 우리학교 학생식당으로는 생활협동조합(이사장=송일호·경제학, 이하 생협) 직영매장인 상록원, 동곡관, 원흥관 아리수, 체육실 선수들이 이용하는 선수식당 등 4곳과 임대매장인 문화관 원향이 있다. 이들은 학내구성원들이 매일매일 끼니를 해결하는 곳이기 때문에 맛, 가격, 위생상태 등에 대한 평가와 불만이 끊임 없이 제기된다. 따라서 학교 홈페이지 '나의 주장'에 올라오는 학생들의 민원인 생협 직원과 매장관리책임자가 매일 확인을 하고 내용에 따라 직접 답변을 한다.

우리학교 생협은 학생식당에 대한 학내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체계적인 평가 제도로써 모니터요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생협은 학기가 시작할 때 모니터요원을 모집해 새로 구성하고, 현재는 학부생 4명, 대학원생 1명, 교원 1명, 직원 1명 등 총 7명의 모니터요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생협에서 매주 5매의 식권을 제공받아 학생식당을 이용하고 일정한 양식에 맞추어 모니터 한다. 이는 음식에 대한 평가와 식당의 전반적인 환경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진다. 모니터요원은 학생식당의 발전을 위해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7명의 모니터요원이 모든 학내 구성원을 대표하기에는 인원수에 무리가 있다. 또한 모니터의 내용도 아직 형식적인 부분이 있어 그 의견이 학생식당 환경 개선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듯하다. 제도상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번 학기에는 지원자가 없어 모니터요원 모집에 한 달이 걸렸다. 이는 모니터요원 제도에 대한 학내의 관심과 인지도가 부족함을 나타낸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생협은 앞으로 매장관리위원회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학내구성원들이 주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해 식당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할 때는 이를 검토해 적극 활용해 나갈 방침이다. 생협 이재욱 기획재무팀장은 "모니터요원 제도는 누가 누군가를 지적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식당의 발전을 위해 학내 구성원들이 힘을 모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 모니터요원의 수를 늘리는 등 이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학내 구성원들의 관심과 객관적이고 다양한 평가제도로 학생식당의 발전을 위한 노력이 계속 되어 모두에게 만족을 주는 학생식당이 되길 기대해본다.

타학교 학생식당 분석

각 학교의 특징 살린 메뉴·행사 개발

학생들의 의견 수렴 반영이 무엇보다 중요

사람의 생활에 가장 필수적인 음식주, 그중에서도 식, 우리는 먹는 것에 가장 민감하다. 대학생들의 곁에 가까이 있는 각 대학의 교내식당은 어떻게 우리의 만족을 채워주고 있는지 살펴 보았다. 우선 메뉴의 다양화를 추구하고 있다. 연세대는 매일 11가지 정도의 메뉴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다양한 입맛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종대의 경우 한식, 양식, 분식 분야 안에서 변화를 주고 있다. 예를 들면 버거를 판매하더라도 칠리버거, 불고기버거 등으로 종류를 세분화하는데, 여기서 작은 것 하나에도 다양화를 힘쓰는 노력이 엿보인다. 또한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에는 카페테리아 형태의 식당이 있다. 원하는 음식들을 팔라먹고 이에 맞는 가격을 지불하는 방식이라 경제적이다. 더불어 각 학교만의 이색적인 메뉴를 제공하거나 프로그램을 진행

하고 있다. 성균관대는 학생들이 음식마다 칼로리를 신경 써서 먹을 수 있도록 식단에 칼로리를 표시한다. 또한 생일을 맞은 학생이 신청하면 미역국을 끓여주는 생일이벤트는 자취나 하숙을 하는 학생들에게 호응이 좋다. 세종대의 경우 '진관홀'이라는 양식식당에 샐러드바를 열어 놓았다. 매일 10여가지가 제공되고 있는데 1800원의 비용으로 지름15센티미터 가량의 접시에 1회에 한해 마음껏 퍼 갈수 있다. 한양대 신소재 공학관 학생식당은 볶음밥, 볶음김치, 계란프라이를 양은도시락에 담아 판매하는데 학생들의 반응이 좋다고 한다. 시험기간에는 '시험을 잘 보세요'라는 의미로 솜사탕을 무료로 나눠주기도 한다. 연세대의 경우 앞으로 후생복지관이 지어지면 기존의 학교식당보다 전문적인 식당을 열여볼 예정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불만사항과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다각도로 귀를 기울이고 있다. 세종대는 우선 생협계시판이나 학교계시판에 올리는 글을 모니터링 하는 직원이 2명이 있다. 이 2명의 직원뿐만 아니라 영양사까지도 인터넷을 통해 학생의 의견을 듣는다. 학생들과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해 생협에서는 자체적으로 12명의 '서포터즈'를 모집하여 학교식당만이 아닌 복지시설에 관련된 전반적인 것들을 모니터링한다. 또한 매주 화요일마다 서포터즈와 학교관계자들의 회의가 있어서 학생들의 의견을 신속하게 수렴할 수 있다고 한다. 점점 대학들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무언가를 내세우려고 한다. 다른 학교에는 없는 특별함을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를 채워주기 위함이다. 우리학교도 타 대학의 장점들을 벤치마킹해 우리만의 색깔을 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윤재 기자 yiyoonjae@dongguk.edu

2006학년도 겨울계절학기 안내
겨울학기 수강신청 안내를 다음과 같이 하오니 관심있는 학생은 해당 기간내에 수강신청 하기 바랍니다.
1. 수업 일정
가. 일반강좌 : 2006. 12. 22(금)~2007. 1. 24(수) / 주 3일 수업(월,수,금), 15일간
1) 2006. 12. 25(월) 수업은 12월 26일(화)에 수업함(화, 수, 금 수업)
2) 2007. 1. 1(월) 수업은 1월 2일(화)에 수업함(화, 수, 금 수업)
나. 스키 강좌 : 2박3일(일정 추후 공지)
* 일반강좌 수업일정과 중복될 수 있으나 일정 유의바랍니다.
2. 일반강좌 개설 대상 교과목 및 시간
가. 개설예정 교과목
- 2006학년도 1학기 및 2학기 교과목 중 계절학기 개설 기준인원을 충족한 교과목
- 단, 사이버강좌 및 학과에서 개설을 원하지 않는 전공·실용실습 과목은 제외
나. 개설 기준 인원 : 강좌별 10명 이상
다. 개설 시간
이수구분 | 오전 시간 | 오후 시간
교양 및 교직 | 학수번호 끝자리 홀수강좌 | 학수번호 끝자리 짝수강좌
전공 | 1학기 개설과목 | 2학기 개설과목
* 야간시간 : 야간강좌 개설 교과목
라. 수업시간
이수구분 | 오전 | 오후 | 야간
1학년 | 09:30-10:30(15-2교시) | 10:30-11:00(8-8교시) | 18:45-19:30(11-11교시)
2학년 | 10:30-12:30(25-4교시) | 14:00-16:00(6-7교시) | 18:30-19:30(10-11교시)
3학년 | 09:30-12:30(15-4교시) | 13:00-16:00(5-7교시) | 18:45-21:00(11-15교시)
3. 수강신청확정 : 재학생 6학점 이내/휴학생 3학점 이내 신청가능
4. 수강신청
가. 기간 및 장소
* 중앙도서관, 만해관은 일반 컴퓨터실습실 개방시간과 다르므로 확인없이 바랍니다.(09:00~21:00)
나. 수강신청 방법
- 정규학기 재학생 및 휴학생 : 홈페이지/다운로드센터/수강신청프로그램 다운로드/수강신청 프로그램으로 해당기간내에 교내 실습실 또는 개인 PC 수강신청
- 9학기이상 재학생 : 소속대학 행정지원실에서 수강신청 가능
소속 | 신청 기간 | 신청 장소 | 신청 시간
서울캠퍼스 | 2006. 11. 7(화)~11. 9(목) | 교내 컴퓨터실습실 | 09:00~21:00
개인 PC | 09:00~24:00
경주캠퍼스 | 2006. 11. 29(수)~11. 30(목) | 경주캠퍼스 학사지원실 | 09:00~17:00
다. 유의사항 : 휴학 중인 학생이 계절학기를 수강하여 졸업요건이 충족

행정고시·외무고시반
입실 신청 공고
2006-2학기 행정고시·외무고시반
추가 입실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06. 11. 06(월) ~ 11. 10(금), 09:00~17:00
2. 신청장소 : 만해관 4층 참고열람실(사진 1매 지참)
3. 선발기준
1) 행정/외무고시 1차 합격자
2) 고시장학선 선발시험 성적 우수자(인문사시험반 포함)
3) 기타 국가고시에 진지한 열의가 있는 수험준비생
* 졸업생 일부 포함
4. 기타 문의사항은
09:00~17:00 사이 2260-357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1월 독서토론 프로그램 안내
중앙도서관에서는 학생들의 교양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독서시력을 고취하고 대학 내 성숙한 토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11월 독서토론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니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독서토론 프로그램이란 : 학생(대학원생 포함)들과 독서토론을 원하는 도서(문학분야 교수(강사 포함)가 진행자가 되어 학생들과 토론을 자유롭게 하는 프로그램임.
2. 일 정
- 일 시 : 11월30일(목) 오후5시-7시
- 장 소 : 중앙도서관 사회과학실(지하층) 특수자료실
- 진 행 : 경영학과 이상현 교수
- 선정도서 : 소림의 과학/ 파코 언더힐 지음, 세종서적 2000
- 정 원 : 10명
3. 신청방법
중앙도서관 홈페이지(http://lib.dongguk.edu/) <도서관광장> 내 (이용자교육) 코너를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토론도서 관련 동아리의 단체신청과 중복신청도 가능합니다.
4. 유의사항
선정도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독서토론 신청 후 무단으로 불참할 경우 차후 중앙도서관 독서증진프로그램 참여가 제한될 수도 있다.
* 토론에 성실히 참여한 학생들에게 도서상품권(1만원)이 지급됩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도서관(02-2260-345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생활·정보침해, 당신은 안전한가요?

개인 정보 및 생활 보호 위한 구체적 방지책 세워야

짧은 치마를 입은 내 사진이 어디선가 돌아다니고 있다면? 혹은 내 블로그에 올린 개인정보가 타인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면?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본 적이 있는가.

개인의 사생활 및 정보노출은 이제 연예인을 비롯한 유명인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인터넷의 개인블로그나 미니홈피가 늘어나면서 일반인들도 쉽게 사생활이 노출되고 있다. 개인의 사진을 올려 개성을 살릴 수 있는 공간인 동시에 개인정보와 인권이 침해되는 공간으로 전락하기도 한다. 개인 미니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는 이윤선(경영1) 양은 "방명록을 통해 공개되지 말아야 할 말이 공개돼 곤혹스러운 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디지털 카메라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여자화장실이나 여관방 등에 설치해 찍은 동영상을 공유 사이트에 유포하는 일도 많아지고 있다. 오프라인의 사진, 영상이 온라인공간으로까지 이어지면서 그에 관한 피해사태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 최 모양(단국대 행정2)은 "지하철에 치마를 입고 탔을 때의 사진이 나도 모르게 찍혀 미니홈피에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었다"며 "그것을 알고 한동안 누가 알아볼까 걱정돼 밖에 나가기도 못했다"고 밝혔다.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을까? 인터넷



상에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김에 따라 인간에게 있는 남을 훑쳐보고 싶은 심리가 작용한 것이 하나의 요인으로 지적된다. 한국사회학회 정기성 편집위원은 "타인의 사생활을 보는 것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고, TV에서조차 공개적인

물래카메라를 보여주고 있다"며 "사생활보호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엿보는 것에 대한 죄의식이 없어지고 있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또한 대중에게 자신의 일거수 일투족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퍼블리즌(publizen)'이 퍼지면서 사생활공개를

즐거게 되고, 타인의 사생활을 엿보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게 된다는 것도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런 상황에 이르자 블로그나 미니홈피의 운영자도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싸이월드는 지난 달 10일 '권리보호센터'를 오픈해 네티즌들의 책임과 권리에 대한 의식을 일깨워 주는 공간을 마련했다. 싸이월드 홍보실 심예원 직원은 "사생활보호를 위해 각종 서비스를 새로 만들어 제공하고 있지만 회원들이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온라인상에서 개인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이용하는 자들에게도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요구된다. 사생활 침해와 관련한 사진이나 글을 발견하였을 시엔 사이버수사대에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이버수사대측은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범위에 대해 "본인의 동의 없이 된 자료는 모두 프라이버시권 침해"라고 말했다.

사생활 침해, 인터넷 공간에서 자료를 공유하기 전에 되짚어봐야 할 문제이다. 우선 개인 스스로가 자기 사생활을 보호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이와 함께 날로 발전하고 있는 사이버 공간 안에서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지책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

김나리 기자
viki26@dongguk.edu

생활 속 침해 알고 대처합시다

사소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사생활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요즘.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서울 여성의 전화 상담회 상담원에게 물어보았다.

#사례1 A씨는 개와 함께 지하철에 탑승했다. 갑자기 지하철 안에서 개가 똥을 싸고 개 주인은 내릴 정차 역에 도착하자 개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내렸다. 하지만 이를 지켜본 한 시민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고 이 상황을 찍은 사진을 올렸다. 이 사진은 인터넷을 통해 널리 퍼졌다.

<대처법과 처벌> 여자는 사진을 최초로 올린 사람과 유포자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 있다. 고발당한 가해자는 벌금형에 처한다.

#사례2 B씨는 P2P사이트에 자료를 검색하다 놀랐다. 자신이 찍힌 동영상의 유포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집에서 샤워하는 모습을 찍은 것이라 더욱 당혹스러운 수밖에 없었다. 절대 자신이 물래카메라에 찍히리라는 걱정을 하지 않은 그녀로서는 이 일로 인해 크게 충격을 받았다.

<대처법과 처벌> 성폭력특별법에 보면 동의 받지 않고 찍은 동영상을 통신매체를 통해 퍼뜨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덧붙여 일반동영상인 아닌 성적추진성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일 경우 가중처벌을 받는다. 피해자는 P2P 사이트에 동영상 재생금지를 요청할 수도 있다.

#사례3 C양이 지하철을 타기 위해 계단을 올랐다. 그런데 자신의 발걸음에 따라 누군가가 자신을 훑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엿보았더니 한 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 남자는 C양의 짧은 치마 속을 훑어보고 있었던 것이었다.

<대처법과 처벌>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나 사생활을 촬영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바로 잡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나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하철수사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하다.

#사례4 D씨는 최근 들어 자신에게 모르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가 매일 수십 통이나 된다. 하루는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서는 순간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여자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태연하게 "오셨어요"라고 한 마디 던졌다.

<대처법과 처벌>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 될 때는 우선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스토킹과 관련이 있는 것이면 편지, 선물, 전화 응답기 녹음, 사진, 비디오 어느 것 하나 빼먹지 말고 보관해야 한다. 현재 스토킹 관련법이 없지만 성희롱이나 명예훼손 같은 벌로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윤재 기자
yiyoonjae@dongguk.edu

학교 내 화장실 물래카메라 문제 후속 보도

낙후된 시설 개선 위한 공사 진행 중

학교내 인권 보호 위한 지속적인 개선안 마련 필요



학생들이 활동하는 캠퍼스 곳곳의 공간. 강의실부터 화장실, 도서관까지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에서도 학생 사생활과 인권을 보호해 줄 수 환경이 얼마나 조성돼 있을까?

캠퍼스내 공간과 같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용으로 활동하는 공간에서는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가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화장실은 학생들의 인권이 보호돼야 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는 새에 자신의 정보 혹은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돼 우리 신문(1421호, 2006년 3월 13일자 참고)에서는 지난 3월 여학생 화장실 물래카메라 영상 유포와 관련해 여학생 인권보호실태를 문제점으로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학교 측은 "서울중부경찰서 사이버 민원과에 접수해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학교 측 조치에 따라 물래카메라 영상을 유포하는 자는 경고조치와 처벌을 받게

된다.

현재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부경찰서 사이버 경찰청측은 "영상을 유포하는 사이버공간의 특성상 유포자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수사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데에는 건물에 지어진 시기가 오래돼 화장실 시설이 낙후된 것이 요인으로 작용했다.

학교 측은 지난 8월 여름방학기간을 이용해 다른 건물에 비해 비교적 시설이 낙후됐던 해화관, 학림관 화장실 개보수공사를 진행했다. 이번 개보수 공사에서는 인권침해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화장실 안에 각 칸을 나누는 벽의 높이를 조정했다.

하지만 해화관과 학림관 외에도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낙후된 환경 및 시설보수가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까지 개선되지 못한 낙후시설이 제2의 피해와 범죄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설관리팀 박정훈 팀장은 "현재 개보수작업이 이뤄진 화장실 이외에 다른 건물의 화장실 낙후된 시설을 개보수 일정이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았으나, 현 상황을 조사하고 예산을 협의해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캠퍼스 공간 안에서 학생들과 구성원들이 안심하고 활동하기 위해서는 건물 내 환경개선과 제도적 방안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지혜 기자
iamjh713@dongguk.edu



화장실 개보수 공사를 통해 학림관 화장실(왼쪽) 바닥 칸막이를 설치했다. 오른쪽은 바닥 칸막이가 없는 학생회관 화장실.

외국 장애인 캠프 체험기①



편견을 깨는 새로운 세상을 접하다

언젠가 읽어본 듯한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구가 내게는 나의 지루한 삶에 던져진 경종같이 느껴졌다. 같은 이상과 같은 길만을 바라보며 방향 없는 미래를 살아왔던 내게 무언가 좀더 특별한 일 좀더 새로운 변화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던 중 한 친구로부터 나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만한 장애인캠프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새로운 세상으로 출발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의 이야기다. 4개월 동안 지속되는 이 프로그램은 여름동안 2~3달 정도 캠프와 자유여행으로 구성돼 있다. 그로부터 8개월 후 홀로 뉴욕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처음 나가보는 외국. 외국은 둘째치고라도 비행기를 타는 것 자체가 처음이었던 내겐 하루하루가 새로웠다.

비행기를 타는 그 순간부터 수많은 벽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리라는 것을 미처 예상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내게 일어난 갑작스런 변화를 견뎌 내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었다.

캠프참가자를 위한 사전교육

캠프 봉사자들은 세계 각국에서 찾아온 스태프들로 아시아권에서는 나를 포함하여 단 2명만이 참가했다. 매일 언어장벽과 문화차이를 필감하며 새로운 환경에서의 생활은 시작됐다. 캠프가 열리기 전에 모든 스태프들은 일주일간 사전 교육을 받게 돼 있었다. 캠프에 참여하는 대상이 단순 장애인뿐만 아니라 몸을 가누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장애와 증상을 다루어야 하므로 사전 교육은 필수였다.

오리엔테이션 기간은 내 인생에 있어 있을

외국의 장애인캠프 프로그램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 체험에 대해 우리학교 UBC 교환학생 이제인 군을 통해 3회에 걸쳐 들어본다. 편집자

수없는 큰 교훈을 가져다 준 시간이었다. 지금까지 장애인에 대한 생각을 겉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차별의 시선을 던져왔던 나의 편견을 바꾸게 된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교육기간동안 스태프들은 장애인 긴급 상황 대처법뿐만 아니라 장애인 관련 연방법, 차별과 평등, 장애인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의 등급에 따라서 연방정부의 지원을 통해 캠프에 참가한다. 캠프는 주5일 동안 진행되는데 봉사자들은 그 기간동안 1~2명의 캠퍼들을 배정 받아 아침식사시간부터 취침시간까지 캠퍼가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욕구와 활동을 도와준다.

활동에는 레크레이션, 수영, 각종 스포츠활동 이외에도 웃을 갈아입는 일, 화장실 사용, 샤워를 도와주는 캠퍼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일까지 포함하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의 일도 담당하게 된다.

사실 이전에 장애인과 관련한 경험과 지식이 전무한 내게 처음엔 '이런 일이 내게 지나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다. 그도 그럴것이 캠퍼와의 의사소통 한계에서 오는 시행착오와 다른 스태프와의 언어장벽을 동시에 느끼는 상황에서 장애인을 향해 가져왔던 편견은 완전히 나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말았던 것이다.

이제인 (사범대 교육3 휴학중 · 현 UBC 교환학생)



장애인캠프 오리엔테이션 중 시각장애 체험

권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는다. 어떻게 보면 지루한 강의체처럼 느껴질 분야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결코 그 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모든 교육은 실제 장애인들과 장애인들과 함께 직접 그들의 경험담을 듣는 과정으로 진행되어 주제에 대한 접근이 훨씬 진지하게 이뤄졌다. 이 부분은 스태프들의 책임성과도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라 기본적인 카운셀러의 활동방향과 성공적인 임무수행을 위해서는 필수과정이었다.

봉사자로서 캠퍼와의 만남

장애인캠프는 연방정부인 뉴욕주의 지원으로 운영되며 대부분의 참가자는 정해진 장



장애우 Dennis 할아버지와 함께.

열린글터

독자여러분의 글과 사진을 기다립니다. 동대신문은 독자 참여 확대를 위해 독자여러분이 직접 찍은 사진이나 만화, 만평, 4매 분량의 글 등을 게재합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www.dgupress.com E-mail dgupress@dongguk.edu TEL : 2279-3491 ~ 2 FAX : 2279-1270

심우장을 아시나요?

학교에 애정을 갖고 다닌 사람들은 누구나 한두 군데쯤 추억이 담긴 곳이 있을 것이다. 맑고 시원한 그늘에서 낮술을 즐기던 라스베가스, 잔디는 한 포기도 없는 그린필드 같은 곳 말이다. 나에게도 그런 공간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심우장이다.

심우장은 학내에서 다양한 불교문화 행사를 향유할 수 있게 하고 불교관련 도서나 불품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불교대 학생회에서 1989년에 옛 중앙도서관 1층에 조성하였다. 그러던 것이 만해관의 리모델링 후에는 '학생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불법적인 공간이다'라는 이유로 불법적인 공간이 되어 버렸다.

유로 공간을 배정받지 못하고 정각원 뒤편 외진 곳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컨테이너박스 신세가 되고 말았다.

이에 따른 불교대 학생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학교 측에서는 다량관 서점과 접화점에 편입시키자는 제안을 하였지만, 이는 불품판매소로 전락하는 것일 뿐 본래 취지와는 무관하다. 건학 100년의 불교종립대학에 서구식 소비문화를 대표하는 로즈버드는 두 개나 들어서면서 불교문화 향유의 공간을 허가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부당한 처사이다. 또한, 20년 가까이 학교와 학생들에 일정 기여를 한 장소의 정당성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도 낯선

스라 할수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심우장의 폐장이 아니라 오히려 확장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책을 읽고 차를 마시고 풍경소리와 음악을 즐기할 수 있는 쉼터를 가지는 일이다. 좋은 차와 문화를 편안한 분위기에서 향유하는 것은 동국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아닌 정신적 자산이 되지 않을까?

물론 현재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한 운영과 접근성 향상이라는 과제를 가지고 있지만 큰 원칙에 뜻을 모은다면 운영상의 문제는 쉽게 풀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가슴에 일상의 여유를 갖고 문화를 향유하던 심우장에서의 한때가 추억으로 남기를 기대해 본다.

정학수 (불교대 선학3)

그들만의 축제 아닌 우리들의 축제로

유난히 길었던 여름의 끝에서 새로운 마음과 함께 개강을 맞이한 것도 어찌 두 달이 지났다. 개강과 동시에 계획했던 2학기 목표들을 이뤄가면서 생활하다보니 중간고사 기간도 지나고 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겨울도 반짝 다가왔다. 개강을 하고서 날씨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 백상음원대전을 시작으로 기타 단과대별 행사들이 정신없이 지나고 나니 축제는 모두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일 년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의미 있는 행사들이

다시금 동아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

게시판의 대자보를 살펴보면 이곳 저곳에서 단과대별 한해 마무리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다. 친목을 도모하며 선후배간의 만남의 자리가 마련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계획되어 학생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의 모습을 보면 결실의 계절인 가을에서의 뿌듯함이 느껴진다.

그러나 준비하는 학생들과 참여하는 학생들의 즐거움 뒤에는 더 많은 학생들의 무관심이 언제나 문제가 되어

왔다. 통신수단과 대자보 등 온라인 오프라인을 활용한 홍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사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수는 제한적이고 학습제 등은 언제나 '그들만의 축제'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 마음이 언짢아진다.

내가 속해 있는 단과대의 행사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인다면 '2% 부족해 언제나 아쉽다'는 말은 옛말이 될 것이다. 축제는 그들만의 명석이 아니라 는 점을 우리 개개인이 인식하고 행사에 참여하도록 노력해보자. 그렇다면 싸늘한 계절도 조금 더 훈훈해지고 추수의 기쁨은 배가 될 것이다.

김주현 (사범대 역교2)

일상의 청량제가 된 연극 '라이어'

문화를 즐기는 것은 언제나 즐거운 일이다. 아주 슬픈 비극을 볼 때나, 무서운 영화를 볼 때 우리는 '연민과 공포'의 감정을 분출하게 되고 이로써 마음의 정화를 얻고 있는 한다. 작품에 몰입할 때는 비정하고 슬퍼서, 혹은 무서워 극도로 흥분하지만 작품이 끝난 후에는 오히려 진정되어 후련한 마음으로 극장을 나올 수 있는 것이다.

희극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웃음이란 소재로써 관객을 놀라게 하고, 불가능한 것을 왜곡시키고, 그리고 수다의 반복과 말장난, 우스꽝스러운 대사

가 관객들의 감정을 씻어내 준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카타르시스'라 했던가.

연극 '라이어'는 그 감정의 분출 방법에 있어서 희극의 그것을 따른다. 쉴 틈 없이 쏟아지는 배우들의 대사는 '저 많은 대사들을 어떻게 다 외울까' 싶은 경외감을 느끼게 하고 그 놀라움 자체가 곧 웃음의 소재가 된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게 되고, 또 새로운 거짓말을 낳아 기이한 이야기를 구성해가는 연극 '라이어'를 보면서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웃을 수 있었

다. 그리고 그 웃음은 무미건조했던 나의 일상과, 나의 가슴에 시원한 청량제 역할을 해주었다. 별다른 문체도, 의미도 없는 희극 하나가 이런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걸 보면, 웃음이 지닌 그 힘은 정말 대단한 듯싶다.

무묘한 일상에서 벗어나 삶의 활력을 찾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멋진 이성을 사귀어 행복한 나날을 바라거나, 일탈을 꿈꾸며 여행을 떠나거나 하는 등 말이다. 그리고 음악이나, 연극과 같은 공연들을 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그렇게 멋들어진 것은 않은 소중한 것일지라도 분명 어떤 즐거움을 선사해 줄 테니까.

주승환 (문과대 영문1)

보리수

마시멜로의 교훈

아주 먼 옛날 4세기 중국에서, 인도와 천축의 스님들이 경전을 가지고 들어와 번역을 해서 유포하였다. 그런데 번역경전의 문장들이 너무나 엉성하고 그 뜻도 애매모호하였던가 보다.

도안 스님은 인도어와 중국어의 차이점 다섯 가지를 거론하면서 번역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새삼 깊이 인식하고서 당대 천재라 불리는 구마라집 스님을 국가적 차원에서 어서 초빙하여 인도어로 쓰인 경전을 제대로 번역하자고 왕에게 건의를 하였다.

그 뿐이라. 7세기 중국 당나라 현장스님 역시 다섯 가지 경우는 합부로 번역을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원전에 대해 매우 엄격하고 겸허한 자세로 경전

번역에 임하였다. 번역은 말 그대로 다른 나라의 글을 내 나라의 글로 바꾸는 일이다. 그런데 번역을 해갈수록 이 일은 외국인(저자)의 가슴과 머릿속을 파고 들어가 더듬는 작업이라는 생각이 점점 강해진다.

창작과 달리 번역은 원서와 그 저자가 떠어 하니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 까닭에 역자의 멋대로 맘대로 일탈할 수도 없다. 사전에 모든 단어들이 다 실려 있는데 뭘 그리 염살이나고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누앙스가 눈앞에서 현란하게 펼쳐지건만 그걸 우리말로 꼭 집어내지 못할 때면 오금이 저러오기까지 한다.

"번역은 잠미 밭에서 춤추기, 즉 고통 속의 쾌락입니다"라고 전문번역가 김석

희 선생이 말하였다. 과연, 틀린 말이 아니다.

'마시멜로 이야기'가 대리번역 파문으로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지워지는 수모를 당하였다. 아무리 생각해보도 그 책의 역자와 출판사는 한 며칠 집중해서 컴퓨터 자판 다라락 두드려 책 한 권 똑딱 만들어 내는 것을 번역이라고 여긴 것 같다.

옛 역경가들의 겸허하고 진지한 자세를 그들에게 강요할 수가 없었지만 번역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창작도 아닌 것이 포장만 그럴 듯하게 해서 독자를 홀리는 요즘의 출판계가 이 책으로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

이 미령 (동국역경원 역경위원)

금주의 식단

	동국관	상록원	교직원	원 향
월 (11/6)	쇠고기해장국 (2000) 후르츠탕수육 (2000) 김치불고기비빔밥 (2000)	햄김치찌개 (2000) 중국식볶음밥 (2000) 간짜장 (2000)	된장찌개 (3200) 돼배기불고기 (3800) 지반무조림 (3500)	탕국 (2300) 돼배기불고기 (2900) 부대찌개 (2500)
화 (11/7)	참치김자찌개 (2000) 미트스파게티&볶음밥 (2200) 닭도리탕 (2000)	영양갈비탕 (2500) 오징어불고기 (2000) 감자탕 (2000)	된장찌개 (3200) 해물전골 (3800) 닭갈비 (3500)	근대된장국 (2300) 중국식볶음밥&자장소스 (2900) 돈육김치찌개 (2500)
수 (11/8)	낙지콩나물비빔밥 (2000) 제육순대볶음 (2000) 육개장 (2000)	쇠고기미역국&삼선적구이 (2000) 제육비빔밥 (2000) 팜뽕수제비 (2000)	된장찌개 (3200) 날치알살밥 (3500) 조기팜뽕반 (3800)	해물이채죽 (2300) 원향정식 (2900) 순대국밥 (2500)
목 (11/9)	닭곰탕 (2000) 해물김치볶음밥 (2000) 돈삼겹두루치기 (2000)	육개장 (2000) 돈육고구마김정 (2000) 닭조림 (2000)	된장찌개 (3200) 대구지리 (3800) 두부김치 (3500)	어묵두국 (2300) 돼매운탕 (2900) 사골우거지탕 (2500)
금 (11/10)	갈비경단백반 (2000) 오징어이채볶음&소면 (2000) 간짜장밥 (2000)	순두부찌개&궁중떡볶이 (2000) 치킨볶음밥 (2000) 제육김치볶음 (2000)	된장찌개 (3200) 콩비지찌개 (3500) 갈치구이 (3800)	연두부계란국 (2300) 낙지비빔밥 (2900) 돈육김치찌개 (2500)

■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

학생들의 다양한 이야기 담아내야

첫 번째로 교내 무선랜 네트워크 서비스 실시에 관한 글은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 되었다. 수업 시간이나, 각종 과제를 할 때 노트북을 많이 사용하는데 인터넷이 속도도 느리고 잘 연결이 되지 않아서 불편을 겪는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좋은 여건이 되어서 다행이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체제가 유지되고 보완되어야 한다.

중양일보의 전국대학평가가는 비교적 단계도 많이 상승했고 학교별 평가가 비교적 긍정적이었다. 물론 확실적 평가기준으로 평가하는 순위에 너무 연연해서는 안되지만 여전히 경쟁 대학보다 비교적 낮은 순위로 평가된 것과 국제화 부문 교육

여건 및 재정 부분의 문제 등은 우리가 앞으로 개선해야 할 방향을 설정해 주었다.

기획으로 나온 건강관리 기사는 유익했다. 시험기간에 오랜 시간 동안 앉아있어서 몸이 피곤해 지는데, 사진과 글로 자세히 설명해준 스트레칭은 좋은 정보가 되었다. 그리고 건강관리 강좌는 앞으로도 더 마련되어서 대학 입학 후 운동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우리학교의 경영전문대학의 출범은 국제 경쟁력을 가진 대학으로의 발돋움이 되었다. 그리고 타 학교보다 경쟁력 있고 학교만의 특성이 있는 MBA를 만들어야 하는 과제를 제시하였다. 앞서 MBA를 시

독자 사진첩



우리가 주인공 ...

60주년 생일을 맞은 우리 국어국문학과, 선배님들이 일궈놓으신 그 자랑스런 역사를 이제는 저희가 이어 가겠습니다. - 국어국문학과 학생회



행한 타 대학들의 사례에 대해 많은 점검을 통해서 시작해야 한다.

법과대학의 학습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어야 함을 제시했고, 학생들이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반면에 이런 학습제가 그 단과대학만의 행사가 되지 않고 타 전공 학생들도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 측면으로 지원된 사항들이 점점 개선되어야 한다.

신문기자들의 노력으로 한주 한주 알차게 구성된 동대신문은 점점 속이 짙은 석류의 모습이 되었다. 하지만 너무 학교 소식이나 시사적인 이슈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느낌을 받았다. 쌍방향의 이야기가 실려서 공감대 형성이 되도록 학생들의 이야기를 좀 더 듣는 동대신문이 되었으면 한다.

김은영 (공과대 사회환경시스템공)

제1회 국제 학술대회 '글로벌 시대 인문학의 위상과 역할'

시대 전체를 아우르는 불교의 정신

변질된 불교의 진정한 의미를 되찾아 ... 인문학의 위기 해결책 모색



21세기 인문학의 진로에 대해 참가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우리학교는 건학 100주년을 맞아 중국 중산 대학과 공동으로 지난 2일 문화관 덕담세미나실에서 제1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교와 사회의 상관관계에 있어 불교의 역할에 대한 토론이 주를 이뤘다.

특히 '동아시아 근대의 형성과 불교'의 토론에서 김종욱(불교학) 교수는 "서구 사회의 근대화가 제국주의와 내셔널리즘의 이종적인 모습으로 나타난 반면 동아시아 국가들은 여기에 대응하는 과정을 통해 그들의 근대를 형성했다"며 "이러한 근대의 형성과정에서 불교의 '화' 사상과 '평등' 사상이 근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변질된 불교의 해결책 모색을 위한 해외적 진보관점에서 찾고 있다"며 "만해는 '일즉다 다즉일(一即多 多即一)'을 부분의 고유성과 전체의 참여라는 뜻으로 해석하여 내셔널리즘이 제국주의로 비약되는 것을 막고 민족주의와 세계주의 간의 조화를 이룰 수 있

다"고 제시했다.

또한 '소유의 진리에서 존재의 진리으로-불교의 21세기적 과제'에 대해서 김형호(한국학 중앙연구원) 교수는 "서양의 근현대 철학은 이성을 통한 소유하는 형식을 바탕으로 있다"며 "소유의 진리 추구 방식으로 인해 그동안 인류는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등의 소유세계에 종속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유에 대한 종속이 사람의 마음을 탐욕에 치달게 하고 마음의 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소유의 진리가 존재의 행복을 침탈하지 않는 정신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불교의 '사유'는 철학적으로 소유론과 다른 존재의 진리의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찬국(서울대 철학) 교수는 "정신문화의 중요성에는 동의하지만 단지 마음의 변화만 중시 여긴다면 사회개혁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부당한 사회제도를 놔두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경고의 입장을 밝혔다.

이번 학술제의 논의는 그동안 불교가 봉건주의, 사회주의 사회에 편승하는 길을 택하여 평등과 화의 사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한 글로벌을 표방하는 오늘날의 세계화 또한 상호 존중과 조화라는 기본 개념에서 벗어나 '단일성'에 기준을 두어 구성원들의 고유성과 다양성의 손상을 우려했다.

진정한 글로벌화와 파괴된 상호보완적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극복 기회를 불교의 평등과 화엄사상에서 찾아 사회와 접촉시키는 방안을 연구하고 불교 역할은 이전과 다른 확고한 변화의 의지와 함께 실효성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승이 기자 thispaper@dongguk.edu

달하나 천강에

학교의 본뜻은 학생을 잘 가르치는 일



정재형 영산대학원 영화영상학과 교수

내가 지난 학기에 관심 있게 봤던 수업방식은 PBL이란 수업형태였다. 이번 학기에 박사 과목 수업에서 그 내용을 한번 숙지하기도 할겸 해서 학생들과 같이 하고 있다. PBL이란 Problem Based Learning의 약자로서 즉, 문제 해결학습을 말한다. 이 학습은 네 단계로 구성되어 문제를 풀어간다. 첫째는 문제 제시, 둘째는 가설, 셋째는 리서치, 넷째는 이론 적용이다. 실제 해보니 학생들은 적응이 되어 있지 않아 황당해하는 것 같았다. 처음엔 아무 교재도 없고 그저 문제제기를 위한 브레인스토밍만 반복하니가 수동적인 수업에 길들여졌던 학생들은 따라가지 못했다.

토론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제기되지 못하니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가 수업의 관건이다. 토론이 되지 않는 이유는 몇 가지 있다. 그중 가장 큰 이유는 발표하는 습관이 형성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자기주장을 학문적으로 설명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침묵을 지키기 일쑤다.

이 모든 책임은 학생을 제외한 대학관계자들에게 있다. 학교운영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요즘의 대학들은 학생들을 자기 주장이 강한 학생으로 공부시키는 일보다도 교수들을 활용해서 외부 자금을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에만 골몰해 있다. 그런 일에 골몰해 있는 학교관계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게 다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이다"라고.

그 자체를 비난하는 게 아니다. 전도가 어긋나 버렸다는 점을 비난하는 것이다. 그럼 돈만 있으면 교육이 되나? 내가 PBL 수업을 하더라도 외부에서 끌어온 돈을 하 나도 쓰지 못한다. 무슨 무슨 그럴듯한 학술 세미나 등 형식적인 행사치레 하는데 돈은 써야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을 정작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럴 듯 한 게 별로 없는 일상 수업 하나하나에 제대로 투자해야하는데 말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국가에도 있다.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만들어놓은 것이다. 국가는 국가대로 엉터리지만 학교는 학교대로 그 시류를 그냥 따라가기만 하니가 문제가 증폭된다.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효율적인가에 대한 논의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판단해야 한다. 학교일을 해보면 원리나 원칙이 없이 무조건 외부에서 돈을 따야 하고 그걸로 학교는 본인들의 고유 책무를 방기한다. 고유한 책무는 학생을 잘 가르치는 일이다. 그런데도 교수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준다. 책임시간은 하나도 면제해주지 않으면서 돈도 따와라, 국제적인 수준의 논문도 많이 써라, 학생도 잘 가르쳐라. 교수들은 수퍼맨이 아니므로 당연히 학생들에게 무책임해진다.

그리고 대학사회는 병들어 간다. 인문학의 위기? 그건 남 탓 할 일이 아니다. 대학 자체가 만든 것이다. 이 모든 피해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그게 걱정스러울 뿐이다.

이야기 동국 100년사

정권의 부패에 대한 저항

15 불의에 항거하다



4.19 혁명 당시 경무대 앞의 우리학교 학생들.

1960년 3월 15일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가 부정으로 얼룩지고, 4월 11일 마산에서 최후탄에 희생된 김주열 군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4·19 혁명의 불꽃이 점화되었다. 4월 19일 우리학교 학생들은 교문을 나서 국회의사당(현 세종로)으로 향했다. 각 대학의 학생대표들은 거리에서 즉석 토론을 갖고 역할을 분담했다. 이때 우리 학교는 권력의 핵심부인 경무대(景武臺)로 향하는 1만여 명의 시위대를 선두에서 지휘하였다. 경무대 앞에는 무장한 경찰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학생들은 저지선을 뚫기 위해 도로에 설치

된 수도관을 방패삼아 앞으로 나아갔다. 시위대가 돌진하는 순간 경찰의 발포가 시작되었다. 이날 경찰의 발포로 우리학교 법학과 3년에 재학 중이던 21세의 노희두(盧熙斗) 학생이 산화(散華)하였고, 28명의 학생이 중상을 입었다.

이날 경찰 발포로 전국에서 모두 142명이 숨지고 1천여 명이 부상당하였다. 4월 25일 258명의 대학교수들이 '학생의 피에 보답하라'는 플래카드를 든 채 국회의사당까지 시위를 벌이면서 시위는 전국 방방곡곡으로 번져 나갔다.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하야를 발표하였다.

4·19혁명 이후 각계각층의 민주화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소장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다. 쿠데타 세력은 장면 내각을 사퇴시키고 국가재건최고회의를 출범시켰다. 박정희 의장은 1962년 제1차 경제개발계획을 성안(成案)하면서 부족한 개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굴욕을 감수하면서까지 비밀리에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였다. 이에

각 대학은 1964년 봄, 굴욕적 한일 외교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대대적인 시위에 나섰다. 격렬했던 대학가의 시위는 6월 3일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면서 잠시 수그러들었으나 1965년 4월 개학을 계기로 다시 불거졌다.

우리학교 학생들도 1965년 4월 13일 교문을 나서 총무로로 진출하였다. 이미 총무로 5가에는 경찰이 저지선을 구축하고 있었다. 결국 학생들은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경찰에 투석적으로 맞섰다. 이 과정에서 농학과 3학년 재학 중이던 김중배(金仲培) 군이 부상으로 쓰러졌다가 이틀 후인 4월 15일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정권은 전국 대학에 휴교조치를 내린 후 한일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렇듯 우리학교는 역사의 고비 때마다 맨 앞에 서서 불의에 항거하였으며, 그 정신은 오늘 날까지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이용범 소설가·동국 100년사 대표 집필자

국제교육원 가을학기 어학 특강

〈 강의기간: 2006. 11. 13(월) ~ 12. 18(월) 〉

▶ 수준별 원어민 영어 강좌 ◀

Table with columns: 과목명, 강사명, 수강요일, 수강시간, 수강료. Rows include 회화기초, 중급회화, 인터뷰, and Discussion courses.

- ◎ 원어민 영어회화: 자신의 수준에 맞는 단계별 수업 선정, 집중된 실력의 국제 교육원 교수님과 만나는 즐거운 영어 세상, 수업 후 담당 교사 Comments & feedback 제공, Interview & Presentation Skills, Film Discussion

Table with columns: 접수처, 기간, 접수, 문의. Details for course registration including dates and contact information.

- 1. 동국대 재학생 외 외부수강생 (대학원생 포함)은 수강료 1만원 추가, 환불-개강 전 100%환불, 개강 후 3월 이내 80%환불, 개강 3월 후 환불 불가

동국대학교 외국어 교육센터

English Clinic 개소식 안내

English Clinic 은 국제교육원 소속의 원어민 교수님들에게 영어에 관한 자신의 상당 분야를 신청하고 이에 대해 클리닉을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평소에 강의실이나 학원에서 숙시원해 해결해주지 못했던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무료로 개설되었습니다.

11월 6일 2시에 English Clinic 개소식이 혜화관 1층 로비에서 있습니다. 재학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1. 클리닉 시간: 30분 (주 1회), 2. 클리닉 분야: Writing / Speech, 3. 클리닉 인원: 개인 / 그룹 (4명 이내), 4. 접수 시작: 11월 6일부터, 5. 접수 방법: 신청서 양식에 회담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식은 http://ie.dongguk.edu 외국어교육센터홈페이지에서 참조바랍니다.), 6. 문의 및 상담: 2260-3380 / 3472

국제교육원

2006 공과대학 전시회 포스터. 오라! 보라! 즐기라! 엔조이 엔지니어. 건축공학과, 기계공학과, 토목환경공학과, 생명화학공학과, 전자공학과 등 11개 학과 전시회 안내.

동국 100주년 Power Elite 장학 신청 안내

- 1. 장학내용: 장학금 \$50,000/연 이내 지급함 (최대 3년간), 지원대상 학교, 미국 분야별 대학원 평가 순위(전공학과 순위) 상위 5위 이내의 대학 (석/박사 과정), 선발인원: 10명, 2. 지원 자격: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본교 학부 졸업생 또는 졸업예정자(07. 2월), 지원 대상학교의 2007년 9월 입학 대상(예정)자, 3. 전형 절차: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공 구술시험 포함), 4. 전형 일정: 접수일차: 2006. 12. 11(월) ~ 12. 15(금), 1차 합격자 발표: 2006. 12. 22(금), 면접일차: 2006. 12. 27(수), 최종 선정자 발표: 2006. 1. 12(금), 5. 선발기준: 성적 + 면접, 6. 제출 서류: 동국 100주년 Power Elite 장학 신청서(소정양식) 1부, 지원 대상학교의 입학허가(예정)서 1부(해당자에 한함), 본교(학부)성적증명서 1부, (대학원 재학생 또는 졸업생은 대학원 성적증명서 포함), CBT(Computer Based TOEFL), GRE 성적표 각 1부, 자기소개서, 학업이수계획서(소정양식), 주민등록 등본 각 1부, 2인 이상 추천서 (소정양식), 7. 제한사항: 박사학위 취득 후 본교 교원 채용시 우대함, 매년/학기별 학업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양식 및 제출서류는 추후 공지), 총 유학기간은 7년을 초과할 수 없음, 박사학위 미 취득시 중도 포기자로 간주하여 기 지급된 장학금 환수함, 석사 진학 예정자는 박사학위를 취득함을 전제로 지원함, 유학 중 학교변경 및 유학관련 기타사항은 사전별로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 선발이 확정된 자는 반드시 당해연도 입학시기에 등록을 필하여야 함, 8. 제출 및 문의처: 학생처 취업지원센터 진로교육상담팀 (본관 2층), (2260-3927, job@dongguk.edu), * 기타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바람.

학생처

B-boy, 고전과 무대에서 만나다

다른 장르와 접목한 실험적 성격으로 주목 ... 빈약한 구성과 연기미숙은 보완해야

차분한 가야금의 음색과 DJ의 강렬한 비트박스, 스크래치가 어우러져 캐논 번주곡이 울려 퍼진다. 음악을 반주 삼아 역동적인 B-boy(브레이크 댄스)를 추는 남자를 일컬음의 춤과 함께 무대는 완벽한 호흡을 이룬다. 이는 한 회사의 극장광고로서 국악과 B-boy 두 가지 공연을 접목시킨 퓨전공연이 공연장을 찾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스트리트 문화로 인식되던 B-boy가 주류장르와 결합을 통해 무대 안으로 옮겨 대중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현재 'B-boy를 사랑한 발레리나' 공연은 거리의 B-boy를 공연장 안으로 데려온 첫 작품이다. 이 공연은 역동적인 브레이크 댄스와 발레가 함께 녹아있다.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퓨전 공연이 처음 시도 된 것이다. 공연 관람을 위해 흥대 근처에 위치한 B-boy 전용극장을 찾은 이진현(29)씨는 "감상평이 좋아 보러 오게 됐는데 와서 보니 어린아이에서부터 나이에 어른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있어 신기했다"고 말했다.

'B-boy를 사랑한 발레리나'는 시작부터 자유분방함을 유도한다. 반항적 이미지의 B-boy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는 것은 바로 발레의 고아함이다. 이 두 장르가 조화를 이루면서 기성세대가 가지는 거부감도 한결 줄어들게 된다. 한 시간 반 동안 퍼포먼스는 발레리나와 B-boy의 공연을 필두로 그들의 갈등, 그 속에서 주인공 발레리나가 한 B-boy를 사랑해 합체를 배우면서 두 장르간의 갈등이 화해와 융화로 이어진다. 공연장을 찾은 정지혜(31)씨는 "댄서와 발레리나는 각각

캐릭터가 강한데 공연을 통해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 새달랐다"고 말했다.

힙합과 고전 무용의 혼합 장르 공연이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면서 다양한 장르를 접목시키는 실험작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노래와 춤을 혼합한 퓨전 장르공연인 '굿모닝 B-boy'도 오는 16일부터 3일간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펼친다. 현란한 B-boy들의 힙합, 락킹, 하우스 댄스 등 춤의 조화와 함께 여러 장르의 음악과 보컬이 곁들여 진다. 단순히 댄스의 부속으로 끌려온 음악의 비중을 보다 전문화시켜 눈과 귀를 동시에 충족시킨다. 굿모닝 B-boy 이학순 대표는 "단순한 춤을 넘어 창작음악 등으로 다양한 장르를 춤에 접목시켜 대형 극장용 작품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B-boy와 다른 장르의 융합은 전문화된 기획자들의 손을 거쳐 다양한 형태로의 변화를 시도해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B-boy의 퓨전공연은 잠재력과 동시에 한계점도 드러냈다. 춤의 일회성을 극복하기 위해 접목시킨 연극적 요소가 약한 스토리 구성으로 허술함을 드러냈고, B-boy들의 미숙한 연기는 한 시간이 넘는 공연을 채우기엔 역부족이었다.

이질적인 다른 장르의 요소가 결합해 새롭게 재조된 퓨전이 사람들에게 새롭고 신선함을 선사하고 있다. 퓨전 공연이 각 장르의 장점을 흡수시켜 완벽한 하나의 문화로 무대의 중심에서

당당히 빛을 발하기를 기대해 본다.

이승이 기자
thispaper@dongguk.edu



메아리

본말전도

▲ 제나라 최후의 왕 제왕건은 조나라의 왕 위후에게 사신을 보내 문안을 드렸다. 위후는 제왕건의 편지는 보지도 않은 채 사신에게 물었다.

"백성들은 모두 무사히 지내오?" 그 후에 위후는 사신에게 다시 물었다. "그리고 왕께서도 편안하시오?" 이를 들은 사신은 불만스런 표정으로 "저는 대왕의 사신으로 왔는데 백성의 안부를 먼저 물으시고 대왕의 안부를 후에 물으시니 순서가 뒤바뀌지 않았습니까?"라 답했다.

▲ 법원이 유희원 톤스타코리아 대표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과 법원의 대립상황이 첨입가경에 접어들고 있다.

검찰 측은 "범죄혐의가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입장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법원 측은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었기 때문에 영장을 기각했을 뿐"이라고 반박한다.

톤스타 코리아 대표 구속수사 여부를 둘러싼 대립이 계속되면서 검찰 측은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 측은 이를 기각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

▲ 법원과 검찰의 '갑론을박'에 정작 사건의 핵심인 '톤스타 의혹'은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못한 채 묻혀가고 있다.

검찰이 톤스타 경영진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이를 기각하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수사가 아닌 '충돌'의 모습만 보이고 있다. 양측대립으로 인해 의혹의 핵심인 물로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톤스타 경영진에 대한 검찰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데다 엘리스 쇼트 등 본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사신의 말을 들은 위후는 그에 답했다. "아니오, 백성이 살수 없으면 왕 또한 살수 없는 것인데 근본을 묻지 않고 지엽을 묻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겠소?" 이 말을 들은 사신은 말을 이을 수 없었다.

일의 근본질거는 잊고 사소한 부분에만 집착하는 법원과 검찰의 감정싸움이 지속되면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양측의 소모적 대립은 곧 법원과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와도 연결된다.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사법기관을 국민들은 불신할 수밖에 없다. 또한 장기적 감정 대립은 사법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무시한 처사이다.

법원과 검찰이 각자의 역할을 유념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입증하는 진정한 '법원'과 '검찰'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강지혜 편집장
iamjh713@dongguk.edu

대학내 성문화 기획 (1)

올바른 성의식 가지고 양성평등문화 만들자

우리 대학에서도 다양한 성문화가 존재하며 거기에 따른 문제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럴 때 대학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헤쳐 나아가야 하는지 3회에 걸쳐 연재해 본다. 편집자

요근래 들어 대학사회에서 많은 성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과연 대학에 어떤 문화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또한 대학의 성문화는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을까? 그리고 대학이 나아가 할 방향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2000년대 들어 대학에서의 성문화를 말하자면 한마디로 과거와는 다른 자유롭고 개방적인 문화들이 점점 대학가에 자리 잡고 있다. 지금 대학가에 자리 잡고 있는 성문화들은 상당히 개방적이면서도 파격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있

는 것이 사실이다. 동거, 자유로운 성관계 등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현실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자유롭고 개방된 성문화를 나쁜 것으로만 보는 것은 어렵다. 왜냐하면 그런 변화로부터 모든 발전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런 성문화의 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본다. 현재 대학의 성문화를 이야기 하려면 여러 가지 부작용적인 성적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해야 할 만큼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장식하고 있다.

과거의 우발적이고 충동적이었던 사건과는 달리 현재 대학의 성적 사건들은 상당히 체계적이고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부분까지도 보이고 있다. 성관계로 인해 협박하는 사건, 미성년자와의 원조교제, 성매매, 같은 과 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피해 학생이 휴학하는 경우, 교수와 학생간의 성희롱 및 성폭행사건 등등 과거와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 되어 가고 있는 것

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의 본질은 무엇인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분명 성문화는 현재 개방적이고 자유로움을 추구한다. 그렇다면 그런 개방적이고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대학의 성문화에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에서 본 그런 부작용들이 생기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서로 다른 성에 대한 존중과 평등이 아직 존재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 성적인 개방 자유로움이라는 것은 자기와 다른 성에 대한 존중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결코 성적인 쾌락과 이기적인 욕심에서 개방과 자유로움을 생각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현실은 자신과 다른 성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주관에 따라서만 생각하고 행동하는 풍토가 횡행하고 있다. 이것은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상대 성을 존중하고 이해할 때 비로소 양성평등이 이

루어지며 보다 합리적이고 안전하며 안정적인 성문화가 정착되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특정 성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노력해서 될 문제는 아니다. 이것은 남성과 여성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보다 올바른 양성평등 문화를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

예전부터 소리만 들어도 지긋지긋한 성교육을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까?

아니다. 이제 우리는 교육보다는 몸소 행동하는 그런 동국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이론적으로 책상 앞에서 하는 성교육은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 그런 교육은 초등학교 때부터 아주 많이 받았다. 그것보다는 더 적극적인 양성 평등문화를 몸소 실천하는 그런 행동들이 필요한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나와 다른 성의 존재를 인식하고 존중하며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문화 정착에 필요한 노력들을 할 수 있는 동국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모든 동국의 구성원이 참여할 때 동국대학교의 양성평등문화는 실현될 것이다.

진진상
동국대학교 성고충상담원



세상은 東行

우리나라 동국대학교

세상의 중심이 동양으로, 대한민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동양의 큰 사상과 첨단 디지털과학이 만나 꽃 피우는 디지털문화의 중심, 우리나라 동국대학교에서 글로벌 리더의 꿈을 이루십시오.



대학원명	구분	원서접수기간	전형일	홈페이지주소	문의처
일반대학원	주간	11/20(월)~11/28(화)-인터넷접수	12/16(토)	http://gs.dongguk.edu	(02)2260-3116
	야간	11/27(월)~12/1(금)-방문접수			
영상대학원	주간	10/30(월)~11/6(월)	11/10(금)~11(토)	http://dic.dongguk.ac.kr	(02)2260-3762~3
불교대학원	야간	11/20(월)~12/1(금)	12/8(금)	http://gsbs.dongguk.edu	(02)2260-3098
행정대학원	야간	11/13(월)~11/24(금)	12/9(토)	http://gspsa.dongguk.edu	(02)2260-3102~3
교육대학원	야간	11/20(월)~11/23(목)	12/2(토)	http://gsedu.dongguk.edu	(02)2260-3110~1

대학원명	구분	원서접수기간	전형일	홈페이지주소	문의처
언론정보대학원	야간	11/20(월)~11/30(목)	12/2(토)	http://gsai.dongguk.edu	(02)2260-3723
문화예술대학원	야간	11/13(월)~11/21(화)	11/25(토)	http://gsca.dongguk.edu	(02)2260-3607
국제정보대학원	야간	11/13(월)~11/23(목)	11/25(토)	http://gsiai.dongguk.edu	(02)2260-3733
불교문화대학원(경주)	야간	11/13(월)~11/23(목)	11/25(토)	http://www.k.dongguk.ac.kr	(054)770-2392~4
사회과학대학원(경주)	야간	11/13(월)~11/24(금)	11/25(토)	http://www.dongguk.ac.kr	(054)770-2093~4

www.dongguk.edu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 SINCE 1906

동국대학교 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2007학년도 전기